

# 장애 인식개선 위한 하루장터 · 작은 음악회

전북도교육청, 16일까지 분청 1층서 특수교육대상학생 만든 물품 전시·판매·공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과 함께하는 '하루장터 및 작은 음악회'를 13~16일 분청 1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판매·공연 세 분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특수교육에 대한 도교육청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 결과로 만들어진 생산물 홍보 및 판매를 통해 특수학교(급)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행사에는 전주선화학교, 동안차돌학교, 전북맹아학교, 군산명화학교, 다솜학교, 전북예

화학교 등 특수학교 6곳과 전북유니텍고등학교, 전주생명과학고 등 특수학교 2곳, 전주·군산·김제특수교육지원센터 3곳 등 총 11개 기관이 참여한다.

전시에서는 사진, 도자기접시, 그림, 공예 및 미술작품, 비누 등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직업교육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물품들이 선보인다.

특히 도자기 및 천연염색, 목공, 염색, 꽃다발, 꽃리스, 마스크보관함, 원목스피커, 커피박연필 등의 판매행사도 진행된다.

행사 기간 점심시간(12시40분~13시10분)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공연도 준비돼 있다. 13~14일에는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청소

년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을, 15~16일에는 전북맹아학교 학생들의 대취타 연주를 만나볼 수 있다.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하루장터 참여기관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각 부서별로 하루장터 및 작은음악회 이용 날짜와 시간을 제한해 안전한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는 지리산 뱀사골이 한국관광공사와 전국관광기관협의회가 주관한 '친환경 추천 여행지'로 선정됐다.(사진은 뱀사골 단풍 모습)

## '친환경 여행지' 남원 지리산 뱀사골

한국관광공사·전국관광기관협의회 주관 '친환경 추천 여행지' 선정

남원시는 지리산 뱀사골이 한국관광공사와 전국관광기관협의회가 주관한 '친환경 추천 여행지'로 선정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친환경 추천여행지 발굴 및 선정사업은 ▲탄소중립 실천 여행지 ▲친환경 가치 확산 여행지 ▲친환경 생태체험 여행지로 구분하여 우수 여행지를 선정, 홍보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탄소중립 실천 여행지 부문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친환경 추천 여행지는 전국 총 31곳으로, 이 중 지리산뱀사골은 지리산 반야봉에서 반선까지 산의 북사면을 흘러내리는 곳에 위치한 14km 계곡으로, 지리산 국립공원에 있는 여러 골짜기들 중 가장 계곡기가 뛰어난 골짜기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특히 뱀사골 계곡을 따라 걷는 트레킹 코

스 끝자락에 위치한 외운마을에는 천연기념물 424호로 지정된 천년송이 자리해 볼거리도 풍성하다.

또한 지리산국립공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1%의 도전 ▲물티슈NO! 손수건YES! 탄소중립OK ▲탄소중립 쓰레킹 이벤트 ▲산속 내 몸을 던져라 ▲탄소중립 지킴이 양성 등 탐방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여행지를 만들고자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양인환 남원시 관광과장은 "지리산 뱀사골이 친환경 추천 여행지로 선정됨에 따라 겨울 안심관광지로 선정된 지리산 천년송과 함께 지리산 뱀사골을 집중홍보해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여행지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네이버웹툰 · 왓패드 IP 美 VIS서 영화로 제작

왓패드 웹툰 스튜디오-미국 VIS, 콘텐츠 제작 파트너십 체결

네이버웹툰과 왓패드의 통합 영상 스튜디오인 '왓패드 웹툰 스튜디오'가 미국 비아콤 CBS 인터내셔널 스튜디오(VIS)와 콘텐츠 제작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양사는 앞으로 네이버웹툰과 왓패드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영화, 드라마 등 영상화 시리즈를 공동 제작할 예정이다. 또 OTT 플랫폼인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비롯한 비아콤CBS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계획이다.

특히 왓패드 웹툰 스튜디오가 보유한 10억개

이상의 원천 IP를 바탕으로 양사는 여러 장르와 풍부한 스토리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글로벌 MZ세대를 공략해 나갈 예정이다.

VIS는 파라마운트 플러스, 니켈로디언, MTV 등을 포함한 비아콤 CBS 브랜드 및 플랫폼용 콘텐츠 제작을 포함하는 스튜디오 법인이다.

전세계 주요 콘텐츠 사업자에게 오리지널, 공동 제작, 로컬 프로덕션을 통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IS의 모기업인 비아콤 CBS는 미국 3대 지상파TV 중 하나인 CBS와 영

화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소유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다.

왓패드 웹툰 스튜디오 아론 래비츠 부장은 "왓패드 웹툰 스튜디오는 VIS와 협업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하고 독창적인 스토리를 전세계에 공급할 것"이라며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VIS와 함께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VIS 아리 탄 부사장 겸 전략 책임자는 "VIS는 신선한 스토리를 영상 콘텐츠로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왓패드 웹툰 스튜디오와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새롭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 문화재청 · 라이엇 게임즈, 문화재지킴이 후원 약정식

문화재청과 글로벌 게임사 라이엇 게임즈는 올해 후원약정식을 지난 9일 체결했다.

라이엇 게임즈는 문화유산 보존관리와 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 문화재지킴이 협약



을 맺은 이후 10년째 문화재 분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에도 국외문화재 보호, 국민신탁 운동 활성화, 청소년 교육 등의 후원·협력 사업을 위해 8억원을 추가 후원한다. 2012~2020년 후원해온 문화재지킴이 후원규모는 약 70억원으로,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지난 10년간 라이엇 게임즈는 문화재지킴이 후원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자원봉사 활동과 함께 ▲조선 불화 '석가삼존도', '효명세자빈 죽책', '중화공인', '백자이동궁명사각호', '척암선생문집' 책판 등의 문화재 환수 ▲주미대 한제국공사관 원형복원사업의 전시관 시설 지원 ▲'서울 문묘와 성균관'의 문화재 안내관 개선과 3차원 디지털 원형기록 지원 ▲국립고궁박물관의 왕실유물 '노부(處簿)' 보존처리와 관람객 편의시설·교육장소 증·개축 지원 ▲근대문화유산 '이상의 집' 보수정비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조선왕릉·궁궐 관리장비 지원 등 문화재 보존관리분야에서 다양한 후원을 했다. /뉴시스

## 전주공예품전시관, 'K-핸드메이드페어' 서 수공예품 선보여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핸드메이드페어'에 참여해 지역 공예가와 함께 '공예·공존·공감'이라는 주제로 공예품을 선보인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공예가 7명과 '우리 일상 속 공존하는 공예품으로 공감하다'는 의미로 실생활에 활용도 높은 공예품을 출품했다.

출품한 공예품은 ▲다나무 한지등(김경철) ▲수제 돌 도장(김순덕) ▲한지 캔버스 무드등(김완) ▲전통매듭 노리개(이연희) ▲부귀하

관각(이은하) ▲종이 다육이 화분(이진화) ▲도자기 주얼리(정세라) 등으로 약 20여 종이 다.

이와 함께 전주공예품전시관 운영부스 내 별도 공간에서는 무형문화재의 전통공예 기술을 접목해 개발한 공예 체험용 원형 소반, 사각쟁반, 채상갑받침 등 체험키트 6종도 소개한다.

김선태 원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는 전주 공예인의 숨쉬를 대중에게 선보이며, 지역 공예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공예문화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제7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12월 16일(목)~17일(금)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전주매일신문사**  
**주관: 전라북도 스키협회**  
**후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전라북도체육회**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